

최강한파에 난방비 폭탄 ... 광주 저소득층의 혹독한 겨울

보일러 꺼 놓아 수도관까지 '꽂꽂' 옷 꺼입고 이불 뒤집어쓰고 '덜덜'

독거노인·싱글맘 등 추위와 사투 에너지바우처는 턱없이 부족 "날 풀리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광주시 북구 문흥동에 거주하는 유혜영(50)씨가 지난 27일 가스비를 아끼기 위해 보일러 밸브를 줄이고 있다. /전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고진석(83·광주시 남구 사직동) 할아버지는 오늘도 5평 남짓한 단칸방에서 홀로 온몸에 스며드는 한기와 싸우고 있다. 설 명절 이후 연일 최강한파가 이어지고 있지만, 치솟은 난방비 때문에 보일러를 맘 놓고 틀 수 없는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고씨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10년 전부터 걷는 것조차 어려워 수익이 전혀 없는 상태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식사와 에너지바우처 등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최근 폭등한 난방비까지 감당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28일 영하의 날씨에 고씨의 단칸방은 실내임에도 차가운 바람이 벽을 뚫고 들어와 바깥 기온과 차이가 거의 없었다. 문에는 단열재를 붙이고 벽면에는 옷장과 커튼을 설치했지만 실내기온은 영하였다. 난방시설을 마음껏 틀 수 없는 고씨는 결국 내복은 기본에 더러운 패딩 점퍼도 목도리와 털모자까지 중무장하고 온몸을 이불로 둘러싸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가스비를 아끼려 한 것이 오히려 고씨에게는 독이 됐다. 한파에 보일러를 아예 틀지 않은 탓에 수도관이 얼어버려 물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고씨는 "지난해 5만원으로 버틸 수 있었던 한달 난방비가 올해는 7만원으로도 부족하다"며 "가스비를 아끼려 전기장판을 켜려 했지만 전기요금도 올라 이조차도 쉽지 않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광주 지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6만3392명으로 차상위계층(3만7684명)까지 포함하면 10만명이 넘는 취약계층이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같은 달 대비 광주시 도시가스 요금이 35.8% 오르고 전기요금 역시 지난해와 비교하면 18.4% 인상돼 혹독한 겨울을 버티고 있다.

지난 27일 광주시 서구 쌍촌동 주택에서 만난 박복래(72)씨도 힘든 겨울을 보내는 마장까지다.

지난 10년여 동안 셋방살이를 해 온 박씨는 치솟는 도시가스비를 감당하지 못해 난방을 아예 꺼 놓고 살고 있다. 집 안에서조차 목도리와 양말을 겹겹이 끼입은 채 전기장판과 히터를 켜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추위를 견디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박씨에게 또다른 어려움은 생리현상이다. 셋방 밖 마당에 놓인 화장실 변기는 틈만 나면 얼어버리기 때문이다. 뜨거운 물을 주기적으로 부어줘야 하지만, 물을 끓이는 가스비조차 부담된다는 것이다. 결국 집안의 모든 배관이 얼어 세탁기조차 돌릴 수 없어 며칠째 세탁물이 쌓이는 일이 일상이 됐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박씨는 정부에서 지원받는 수급액조차도 월세와 보험비 등을 내고 나면 남는 돈이 한 푼도 없다고 전했다. 지난해 허리를 다쳐 큰 수술을 받은 뒤로는 일도 못 해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커졌다고도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년에 10여만원 수준인 한국 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로는 난방비를 대기에 턱없이 부족해 보일러를 꺼놓고 지내고 있다.

박씨는 "가족들과 떨어져 20년을 혼자서 이렇게 살다 보니 추위에는 익숙하다"면서도 "없이 사는 사

람에게 별 도리가 있겠다. 날 풀리기만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다"고 말끝을 흐렸다.

북구 문흥동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며 가게에 딸린 작은 방에서 아들과 단둘이 살고있는 싱글맘 유혜영(여·50)씨도 가스비 때문에 막막한 상황이다. 기초생활수급비에 가게에서 판매한 옷 수십만 원이 한달 수입의 전부인 유씨는 가게 임대료, 도시가스비 같은 공과금 등을 내고 나면 하루 식비를 겨우 맞추고 있다. 결국 온 몸이 감당되지 않아 가스비가 연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씨는 며칠전 사위중년 아들에게 "사위를 오래 하면 난방비가 많이 나오니 빨리 하고 나오라"는 말을 했다가 뒤늦게 후회하기도 했다. 한겨울에 뜨거운 물로 샤워조차 못하게 하는 엄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유씨는 "외투를 입고 이불을 2개씩 덮고 잠을 잘 때만 난방을 켜고 있지만 날아온 도시가스 고지서는 10여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사용량이 적었는데도 가스비는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전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중국, 한국인 비자 제한 당분간 유지할 듯

일본인 비자 발급은 재개

중국이 일본인 비자발급을 재개했다. 그러나 한국인 비자 제한은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주재 중국대사관은 29일 오후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오늘부터 주일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은 일본 국민의 중국 일반 비자 발급을 재

개했다"고 밝혔다.

일반 비자는 외교, 공무, 예우 비자를 제외한 비자를 의미한다. 중국이 일본 국민에 대한 일반 비자 발급을 중단한 지 19일 만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10일 한국과 일본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응해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일본 국민에 대한 일반 비자 발급을 중단

한다고 발표했다.

또 11일에는 중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가는 외국인에게 72~144시간 동안 중국 공항 등 지정된 곳에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비자 면제도 중단했다. 중국은 일본에 대한 비자 보복은 중단했으나, 한국에 대한 비자 보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중국대사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한국에 대한 조치 관련) 아직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알립니다

호남의 리더 당신을 모십니다



도쿄올림픽 양궁 3관왕 안산 선수가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활쏘기 시범을 보이고 있다.



김난도 교수 유현준 교수 김정은 교수 서은국 교수 심용환 소장

고수들의 명강연 ... 지역 최고 인적 네트워크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11기 원우 모집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고품격 아카데미에 광주·전남·전북 지역 각계 리더들을 모십니다.

광주일보는 3월부터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각 분야 유력인사들이 참여하는 1년 과정의 '제11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를 개설합니다.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초빙해 수준 높은 강의와 함께 각종 공연 등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강연과 토론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주요 영역의 시대적 과제와 해결책을 집중 탐구하는 최고급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창간 71주년이라는 호남 최고 전통에 빛나는 광주일보 브랜드 가치와 영향력에 걸맞게 수강생 여러분이 지역사회 최상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일보가 평생 가족으로 모시는 교육과 교류의 장에 지역 리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 인원 : 00명
- 지원 자격 : 기업 경영진 및 임원, 국회의원·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정부기관 단체장 및 고위관리자, 사회단체장, 법조·의료·교육·문화·예술·체육계 등 각 분야 전문가
- 교육 기간 : 3월 ~ 11월
- 강의 시간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8시30분 (호텔 뷔페 식사 제공)
- 원서 교부 및 접수 : 2월 17일까지
-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 수강료 : 550만원 (부가세 포함)
- 문의 : 광주일보 편집국 062-220-0639

光州日報社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2월 통과하나 ▶2면

수소차 늘어나는데 인프라는 크게 부족 ▶6면

FA컵에서 멀티골 ... 손흥민이 돌아왔다 ▶18면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EQS

This is for you.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 하세요!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104 (의정동)
광주 수문 전시장 0621714-5001 & 광주 민중중고차 전시장 0621945-0007 & 수원 서비스 센터 BP 0621942-7200 / GR 0621942-7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방울대로 565(도원동)

* 본 광고는 표준모드에 의한 결과로 실제 운행 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상차량 편차의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차종이외에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